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8월:-10.7%→9월:-15.1) - 9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8.0(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중공업과 경공업이 각각 27.2%, 11.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5.1% 감소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크게 확대(8월:5.0%→9월:15.7%) - 9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과 대형마트부문이 각각 8.6%, 26.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5.7% 증가함 ○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10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지난 5년간 서울의 10월 평균 물가 상승률(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보합세 - 10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한 63.1%로 남자는 74.6%, 여자는 52.4%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10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한 498만명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10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한 3.9%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9%p)는 6월 이후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2조 1,24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4%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주택 및 사무실·상가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 서 87.4% 감소하였으며,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283.7% 증가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10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임 - 10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은 0.5%, 연립주택은 0.7% 각각 상승한 반면, 아파트는 0.1% 상승하는데 그침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크게 확대 - 9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04조 3,775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 3,528억 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5조 6,983억원)보다 크게 확대됨 ○ 서울의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10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24.8%(334개) 증가한 1,680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6.6%로 나타남 ○ 서울의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크게 증가, 어음부도율 동일 - 10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52개) 보다 50.0%(26개) 증가한 78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상회함 - 10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함 ○ 원/달러 환율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 10월중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역외 달러화 매도 영향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900원 수준으로 하락함

| 생 · 산 |

9월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확대

■ 전국 산업생산 증가폭 크게 감소

- 9월 전국의 산업생산은 추석명절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2.7일) 및 전년도 높은 증가세(17.6%)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어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함
- 업종별로는 반도체 생산(29.2%)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편, 자동차(-17.8%), 기계장비(-10.9%) 등은 감소세로 전환됨
- 3/4분기로는 반도체(28.3%), 자동차(7.5%) 등을 중심으로 신장세가 확대되어 전년동분기대비 8.3% 증가함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

- 9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8.0(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업종별로는 조립금속에서 소폭 증가한 반면 인쇄출판, 섬유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의복 및 모피 등에서 감소함
- 3/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10.1%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7.2%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92.7%), 컴퓨터 및 사무기기(-56.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43.7%) 등 대부분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1.1%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30.5%), 섬유제품(-19.4%), 종이제품(-15.1%), 인쇄출판(-11.3%) 등 대부분이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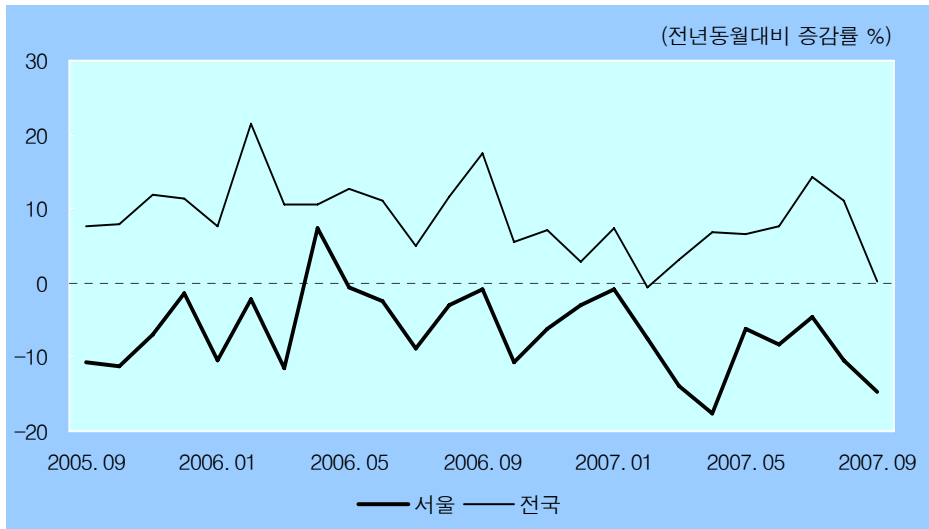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17.6 (9.2)	6.7 (1.0)	7.6 (1.9)	14.3 (2.0)	11.2 (0.7)	0.3 (-0.1)
	서울 (제조업)	-1.0 (10.5)	-6.6 (-8.2)	-8.5 (-4.5)	-4.6 (-1.9)	-10.7 (-4.3)	-15.1 (5.0)
	중공업	-17.1 (4.9)	-10.7 (-16.3)	-13.3 (2.7)	-14.7 (-19.9)	-24.2 (-9.2)	-27.2 (0.8)
	경공업	5.7 (12.4)	-5.1 (-5.0)	-6.5 (-6.9)	-1.1 (5.0)	-6.0 (-2.7)	-11.1 (6.2)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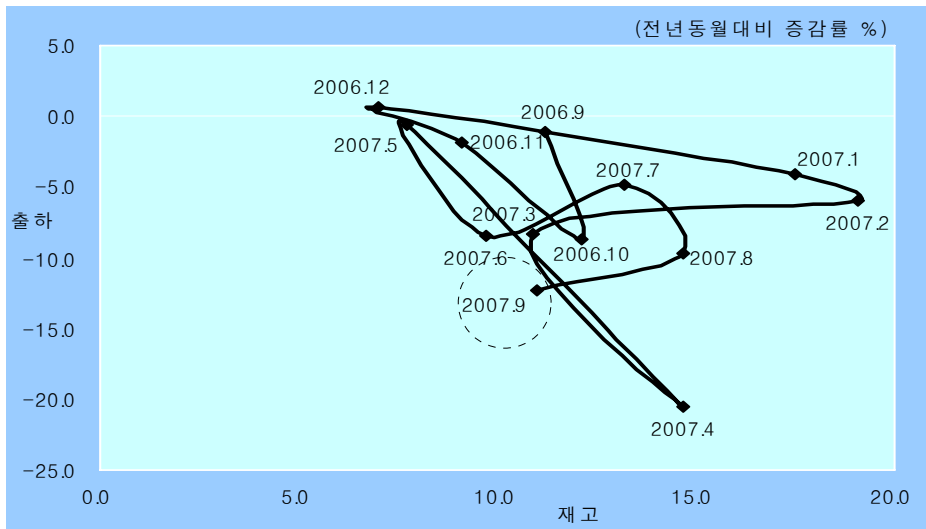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9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세 확대, 재고 증가세 둔화
 - 9월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하고, 재고는 11.0% 증가함
 -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 감소폭이 확대되고 재고 증가세는 둔화됨에 따라 불규칙적 모습을 보임
 -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 전년동월비는 하향하고 재고 전년동월비도 하향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하락

- 9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1.3%로 전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205.5%로, 전월 보다 18.5%p 하락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42.7%p 크게 하락하여 227.2%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0.5%p 하락한 198.0%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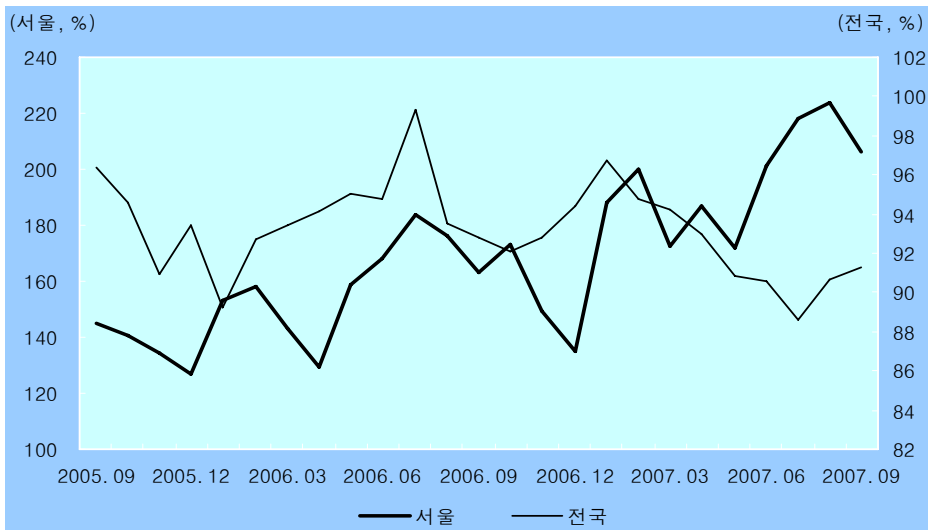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재고율	전국	92.8	90.8	90.6	88.6	90.7	91.3	0.6
	서울 (제조업)	163.2	172.0	201.3	218.3	224.0	205.5	-18.5
	중공업	137.0	153.8	217.4	264.2	269.9	227.2	-42.7
	경공업	188.3	178.5	194.0	202.7	208.5	198.0	-10.5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9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크게 확대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크게 확대

- 9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4,86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6%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백화점은 음식료품, 가전제품,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함
- 대형마트는 음식료품, 의복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6.3% 크게 증가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크게 확대

- 9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4,59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7%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백화점부문의 경우 추석연휴의 이동(06.10.06→07.09.25)에 따른 음식료품, 화장품 등 선물용품의 판매호조로 8.6%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신규사업체 증가 및 추석연휴 이동에 따른 전반적인 상품군 판매호조로 26.5%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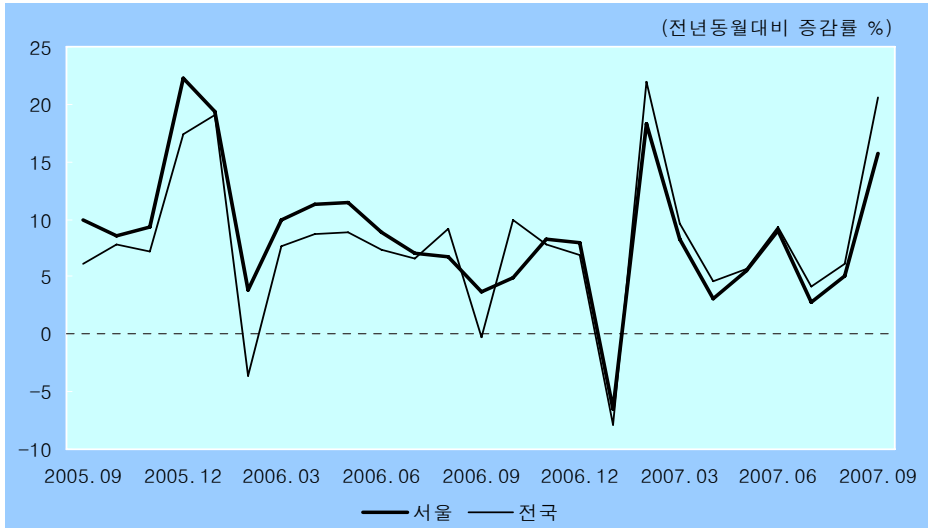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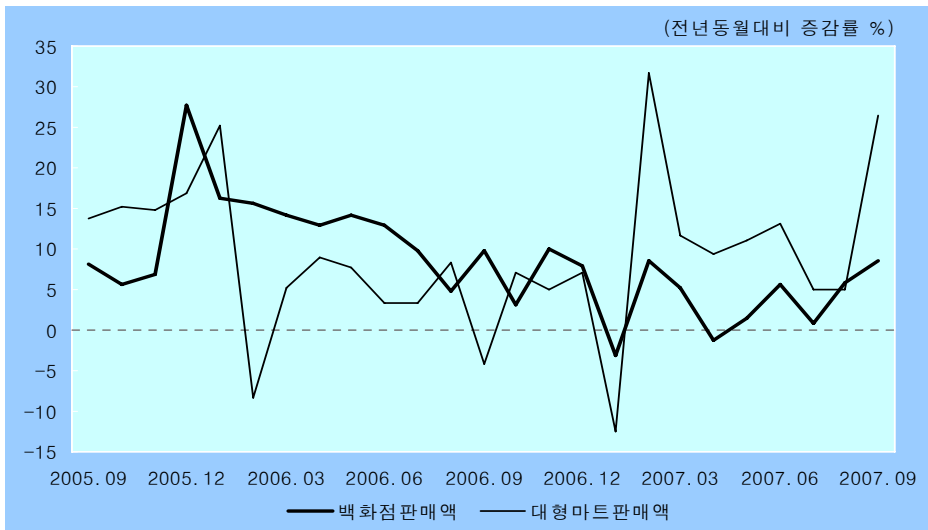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판매액	전국	3,720.3 (-0.3)	3,921.4 (5.6)	3,665.9 (9.3)	3,784.8 (4.2)	3,562.9 (6.2)	4,486.2 (20.6)
	서울	1,260.9 (3.7)	1,322.5 (5.5)	1,226.1 (9.0)	1,231.0 (2.8)	1,123.0 (5.0)	1,459.0 (15.7)
	백화점	711.9 (9.7)	733.9 (1.5)	655.4 (5.7)	658.4 (0.8)	561.0 (5.8)	773.5 (8.6)
	대형마트 (할인점)	513.1 (-4.2)	552.4 (11.1)	536.4 (13.2)	531.8 (4.9)	527.0 (4.9)	649.0 (26.5)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10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10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함
- 채소류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에 상승하고, 국제유가 영향으로 경유, 휘발유 등 석유류와 금반지 등 공업제품이 상승하고, 개인서비스 부문이 오르게 기인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10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로 상승함
- 전국의 물가상승률(0.2%)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난 5년간 10월 평균 물가상승률(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목별로 보면 주거및수도광열(-0.1%), 가구집기및가사용품(-0.1%), 보건의료(-0.1%), 교양및오락(-0.1%)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교통(0.5%), 기타잡비(0.5%), 식료품및비주류음료(0.3%), 의복및신발(0.3%), 외식및숙박(0.1%) 부문은 상승함

■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상승, 서비스부문은 보합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0.3% 상승한 반면, 서비스부문은 0.0%로 보합을 나타냄
- 상품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전월대비 0.3%로 크게 상승하고, 공업제품도 금반지와 휘발유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집세는 전세, 월세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한데 비해,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였으며, 개인서비스는 숙박료(호텔)는 올랐으나 공동주택관리비, 찜질방이용료 등이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을 나타냄

■ 생활물가,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상승폭 감소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지난달(0.9%)에 비해 상승폭이 감소함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와 신선어개, 기타신선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상승하여 지난달(8.9%)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감소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비	전국	-0.5 (2.2)	0.1 (2.3)	0.0 (2.5)	0.4 (2.5)	0.1 (2.0)	0.6 (2.3)	0.2 (3.0)	
	서울	-0.3 (2.1)	0.1 (2.5)	0.0 (2.8)	0.3 (2.7)	0.1 (2.2)	0.6 (2.6)	0.1 (3.0)	
	상품 성질별	상품	-0.8 (0.8)	0.2 (1.5)	-0.2 (1.8)	0.5 (2.1)	0.1 (0.8)	1.3 (1.9)	0.3 (3.0)
		서비스	0.1 (2.9)	0.0 (2.4)	0.0 (3.1)	0.2 (2.9)	0.1 (3.0)	0.3 (3.0)	0.0 (2.9)
	생활물가	-0.5 (2.9)	0.2 (3.5)	-0.1 (3.5)	0.4 (3.6)	-0.1 (2.7)	0.9 (3.2)	0.3 (3.9)	
	신선식품	-2.7 (-0.2)	-2.7 (4.6)	-3.2 (7.4)	3.7 (10.4)	0.2 (-1.2)	8.9 (5.7)	1.3 (10.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10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포함세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

- 10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41만6천명) 증가한 3,929만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0.9%(22만9천명) 증가한 2,448만2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남자는 74.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자는 51.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

- 10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20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는 51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한 63.1%로 남자는 74.6%, 여자는 52.4%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8 (0.7)	1.1 (0.8)	1.1 (0.2)	1.1 (-0.5)	1.0 (-1.4)	1.0 (0.5)	0.9 (0.6)
	서울	-0.1 (1.0)	0.7 (0.5)	0.2 (-0.3)	1.0 (0.5)	1.1 (-0.8)	1.2 (0.5)	0.5 (0.2)
	남자	-0.3 (0.5)	0.4 (0.2)	0.8 (-0.1)	1.1 (0.7)	1.6 (-0.5)	1.1 (-0.3)	0.4 (-0.2)
	여자	0.2 (1.7)	0.1 (0.8)	-0.6 (-0.7)	0.9 (0.2)	0.4 (-1.2)	1.4 (1.7)	0.5 (0.8)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4	62.7	62.8	62.6	61.7	62.0	62.3
	서울	63.2	63.3	63.1	63.4	62.8	63.1	63.1
	남자	74.7	75.2	75.1	75.6	75.1	74.8	74.6
	여자	52.3	52.1	51.8	51.8	51.2	52.0	52.4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10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0월 전국의 취업자는 2,37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8만7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7.9%(1,374만2천명), 여자는 42.1%(1,000만8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하고, 여자도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2.6% 증가함
- 청년층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2.1%)에 비해 감소폭이 1.9%p 감소한 -0.2% 이며, 고령층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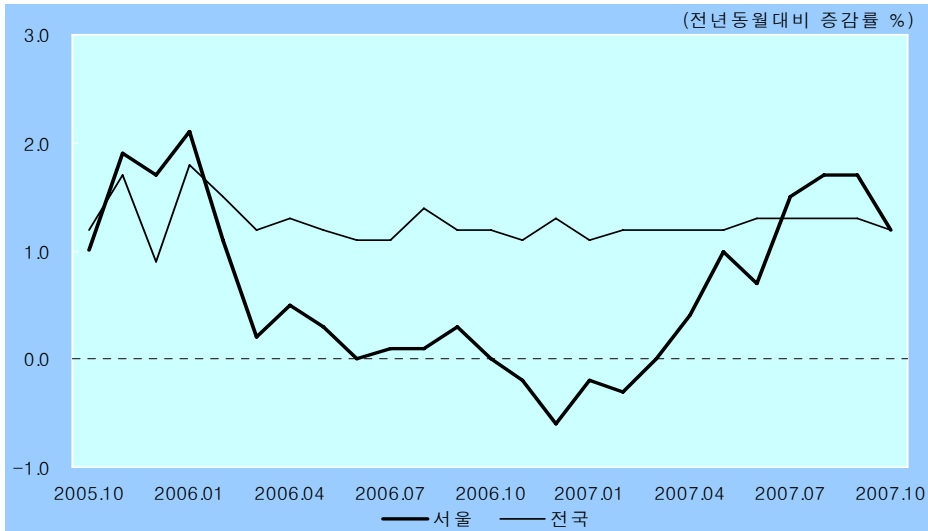
- 10월 서울의 취업자는 49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만1천명) 증가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서울의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1%(284만2천명), 여자는 42.9%(213만8천명)로 전체 취업자중 남자 취업자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0.8%p 낮고, 여자는 전국에 비해 0.8%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2% 증가하고 여자는 1.3% 증가하여 남자는 전월(1.1%)에 비해 전년동월대비 상승을 보인 반면, 여자는 전월(2.5%)에 비해 전년동월대비 하락 보임
- 전체 취업자의 20.6%(102만8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함
- 전체 취업자의 15.2%(75만7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여 전월(2.6%p)에 비해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8.2%p 축소됨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가 5.4% 증가한 것에 비해 60세 이상은 0.3%로 크게 증가함

〈표〉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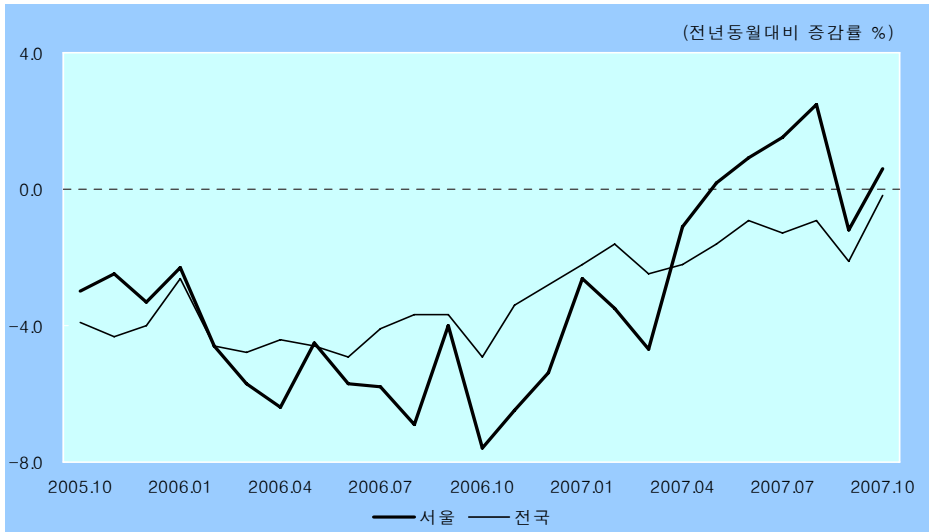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취업자	전국	1.2 (0.6)	1.2 (1.0)	1.3 (0.2)	1.3 (-0.3)	1.3 (-1.2)	1.3 (0.7)	1.2 (0.5)
	서울	0.0 (0.5)	1.0 (0.8)	0.7 (-0.1)	1.5 (0.3)	1.7 (-0.8)	1.7 (0.6)	1.2 (0.1)
	남자	-0.3 (0.0)	0.6 (0.9)	1.0 (-0.1)	1.0 (0.4)	1.6 (-0.7)	1.1 (-0.3)	1.2 (0.1)
	여자	0.4 (1.3)	1.6 (0.6)	0.3 (-0.2)	2.1 (0.2)	1.9 (-1.0)	2.5 (1.8)	1.3 (0.1)
청년층 취업자	전국	-4.9 (-0.6)	-1.6 (1.2)	-0.9 (-0.1)	-1.3 (2.9)	-0.9 (-3.0)	-2.1 (-2.5)	-0.2 (1.3)
	서울	-7.6 (-2.3)	0.2 (1.7)	0.9 (-0.3)	1.5 (1.7)	2.5 (-2.3)	-1.2 (-3.0)	0.6 (-0.5)
고령층 취업자	전국	6.1 (2.8)	6.6 (3.3)	5.6 (0.2)	5.7 (-2.2)	5.5 (-0.6)	5.0 (1.5)	2.6 (0.4)
	서울	8.2 (5.8)	8.0 (0.9)	5.1 (-1.3)	9.4 (1.5)	8.1 (-0.7)	10.7 (3.8)	2.5 (-2.1)
	55-59세	3.4 (2.0)	4.2 (2.2)	0.4 (-3.2)	5.7 (3.4)	7.2 (0.2)	5.9 (1.6)	5.4 (1.5)
	60세 이상	11.9 (8.8)	11.2 (0.0)	8.7 (0.0)	12.3 (0.2)	8.7 (-1.3)	14.5 (5.4)	0.3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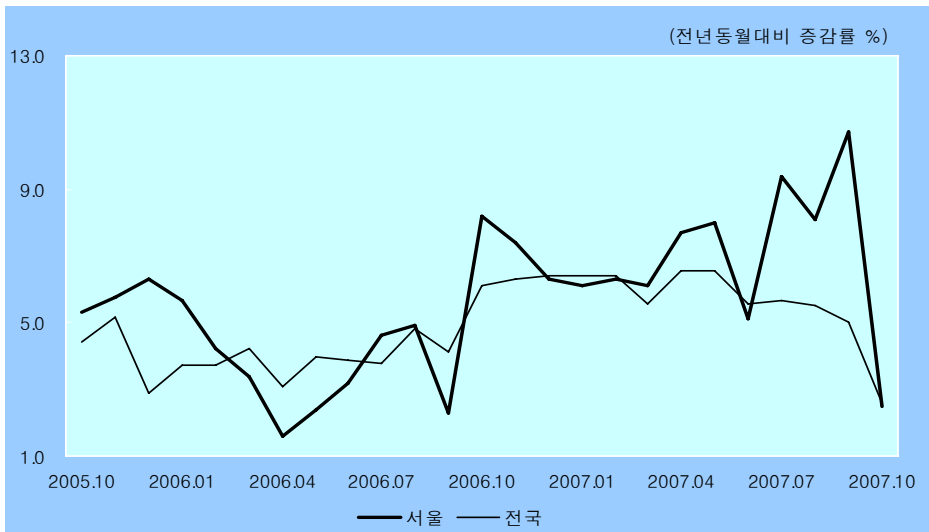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10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9.1%)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6.6%), 제조업(14.5%),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0%), 건설업(8.8%)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하여 전월(7.3%)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며,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7.1%), 건설업(5.0%)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8.0%, 도소매·음식숙박업은 5.5%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4.8%)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됨

■ 서비스·판매 종사자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수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동월대비 증가

- 10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1.3%)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8.6%), 서비스·판매 종사자(24.5%), 사무종사자(15.5%) 순임
- 서비스·판매 종사자(-0.3%)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1.4%)를 제외하고, 전문·기술·행정관리자(5.8%)와 사무종사자(0.3%)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나타내며, 지난달(-3.8)에 비해 감소폭(1.9%p)이 축소됨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10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4.2% (369만3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5.8%(128만7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2%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8%(10만1천명)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3.1%(4만1천명) 감소하여 지난달에 이어 비임금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감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2.7%)와 임시근로자(-2.0%)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6.6% 감소하고, 자영업주는 2.4%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별	· 제조업	0.0 (5.4)	-7.0 (-0.5)	-5.0 (-0.4)	-7.6 (-0.4)	-7.5 (-2.5)	-4.8 (3.5)	-8.0 (1.9)
	SOC 및 기타서비스업	0.0 (-0.3)	2.6 (1.1)	1.9 (-0.1)	3.2 (0.4)	3.5 (-0.6)	2.6 (-0.2)	3.1 (0.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5 (0.5)	8.8 (1.7)	9.2 (1.7)	10.0 (0.8)	9.4 (-0.6)	7.3 (-0.5)	8.2 (1.3)
	· 도소매·음식숙박	-1.8 (-0.6)	-5.1 (-0.3)	-6.9 (-0.2)	-5.0 (1.7)	-4.0 (-0.6)	-4.7 (-0.9)	-5.5 (-1.4)
	· 전기·운수·통신·금융	-0.4 (-1.0)	4.1 (3.0)	4.3 (-1.9)	3.3 (0.7)	2.9 (-0.4)	6.3 (0.3)	7.1 (-0.3)
	· 건설업	0.1 (-2.0)	0.5 (0.1)	-2.0 (-5.2)	2.5 (1.9)	4.5 (-0.5)	2.9 (2.8)	5.0 (-0.1)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4 (-0.6)	2.8 (0.5)	7.1 (4.0)	6.2 (-1.4)	7.3 (0.0)	6.0 (0.4)	5.8 (-0.8)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6 (3.0)	-1.5 (1.1)	-0.3 (-2.9)	-0.7 (1.7)	1.2 (-1.6)	0.6 (0.8)	-1.4 (0.9)
	서비스·판매종사자	-3.9 (-0.8)	0.7 (0.1)	-8.8 (-2.1)	-2.6 (2.0)	-3.8 (0.1)	-1.9 (-0.2)	-0.3 (0.8)
	사무종사자	0.4 (0.1)	2.9 (1.8)	6.7 (-0.1)	3.1 (-1.3)	1.3 (-2.6)	-0.2 (0.4)	0.3 (0.6)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8 (0.8)	1.9 (0.9)	2.7 (-0.6)	1.6 (0.7)	3.0 (-1.2)	3.4 (1.1)	2.8 (0.3)
	비임금근로자	-2.0 (-0.3)	-1.2 (0.5)	-4.5 (1.0)	1.1 (-0.8)	-1.7 (0.3)	-2.9 (-0.8)	-3.1 (-0.4)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10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보합

- 10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3.0%(실업자 73만3천명)로 전월(3.0%)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4%(실업자 47만9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5%(실업자 25만4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1.9%, 고졸은 3.6%, 대졸 이상은 3.0%로 고졸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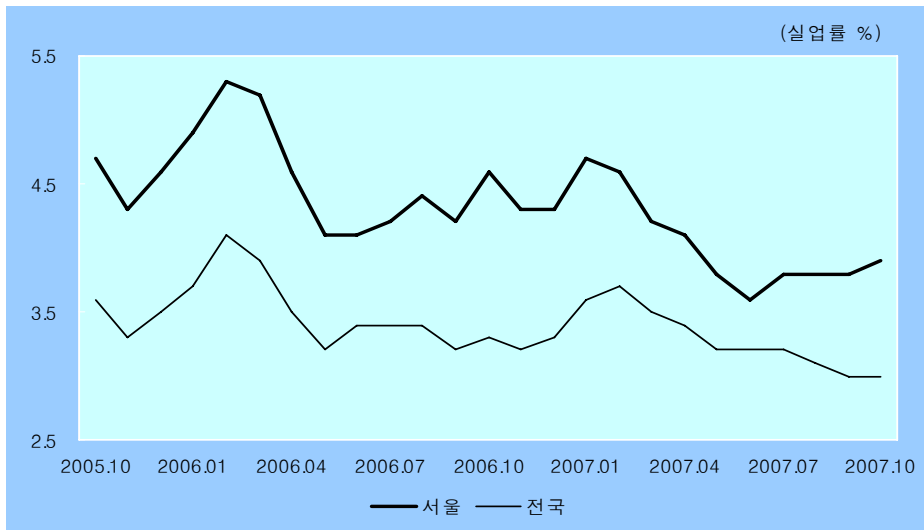
- 10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한 3.9%(실업자 20만명)임
- 10월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격차(0.9%p)는 6월 이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10월 평균 실업률 4.4% 보다 0.5%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 여자는 3.3%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7%p 감소하고, 여자도 0.7%p로 큰 폭으로 감소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1.3%p 높은 반면에, 여자는 0.3%p 높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격차는 전월에 비해 0.9%p 감소한 1.0%p로, 5월 이후 확대되어 오던 남자와 여자의 격차가 10월 들어 축소됨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3.3	3.2	3.2	3.2	3.1	3.0	3.0	
서울	4.6	3.8	3.6	3.8	3.8	3.8	3.9	
성 별	남자	5.0	4.1	4.1	4.4	4.6	4.6	4.3
	여자	4.0	3.4	2.9	3.0	2.8	2.7	3.3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9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9조1,224억 원으로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9.8%의 감소를 보임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32.3% 감소하고, 민간부문도 3.7%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에서 15.9% 증가하고, 건축부문은 15.0% 감소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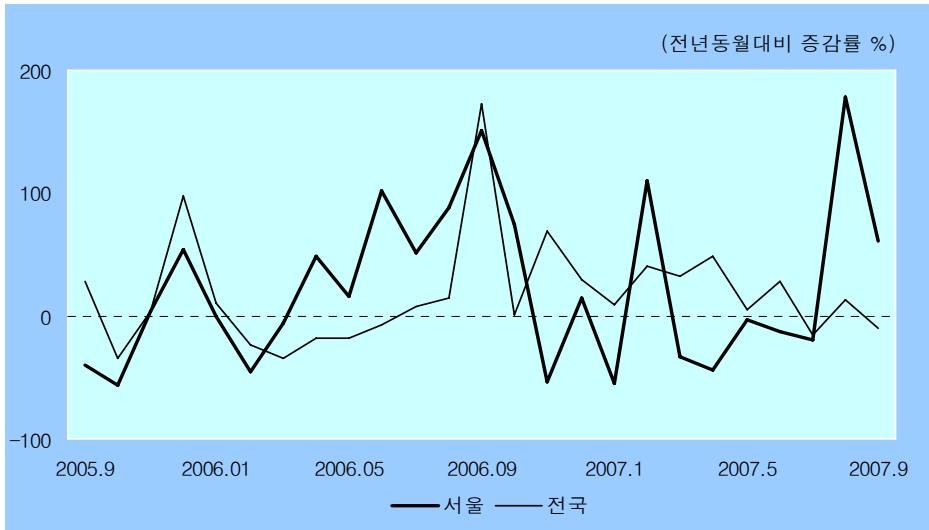
- 9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2조1,24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4%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23.3%를 차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주택 및 사무실·상가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87.4% 감소하였으며,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283.7%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9.8%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75.9% 증가하였으며, 0.2%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96.9% 감소함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10,117.8	7,096.3	11,901.6	6,059.5	6,586.3	9,122.4	-9.8	38.5	
서울	1,316.2	1,277.0	2,215.8	890.3	2,325.7	2,124.2	61.4	-8.7	
발주 자별	공공	596.8	15.8	18.6	55.6	104.8	75.1	-87.4	-28.3
	민간	517.0	1,171.3	2,139.8	834.7	2,200.4	1,983.8	283.7	-9.8
공종 별	건축	1,205.4	1,233.6	2,161.9	877.6	2,200.8	2,119.6	75.9	-3.7
	토목	106.0	36.5	46.5	7.8	118.7	3.3	-96.9	-97.2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7년 10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5,801천㎡로 전년동월대비 116.5% 증가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연립(91.3%)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고, 단독의 신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4.4% 증가하고, 아파트는 16,037.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116.5% 증가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문교 및 사회(81.1%)만 감소하고, 공업(306.6%), 기타(60,505.0%), 상업(63.3%)은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51.9% 증가함
- 2007년 10월 신축허가면적이 가장 큰 구는 송파구(2,194.8천㎡)로 아파트의 신축허가면적이 1,392.5천㎡를 차지함
- 아파트 신축허가면적은 송파구가 2,194.8천㎡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서울	2,679.4	4,508.3	3,341.9	3,844.0	3,688.4	5,800.5	116.5	57.3	
주거용	소계	80.4	175.0	260.7	290.5	405.0	1,853.5	2,205.3	357.7
	단독	12.5	14.9	16.3	14.8	8.6	16.8	34.4	95.3
	연립	57.2	114.9	141.7	84.8	77.2	109.4	91.3	41.7
	아파트	10.7	44.1	98.3	189.5	319.2	1,726.7	16,037.4	440.9
비주거용	소계	2,599.0	4,333.3	3,081.2	3,553.5	3,283.3	3,947.0	51.9	20.2
	상업	1,479.8	3,903.3	2,468.3	2,998.2	2,776.2	2,416.9	63.3	-12.9
	공업	27.4	1.6	109.4	32.7	49.1	111.4	306.6	126.9
	문교/사회	1,089.7	168.0	312.6	483.7	413.5	206.1	-81.1	-50.2
	기타	2.0	260.5	177.0	38.9	39.6	1,212.1	60,505.0	2,960.9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10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0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소폭(0.3%) 상승함
- 가을 이사철 수요가 지속되면서 서울 강북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상승함
- 매매가격 증감률의 장기평균 추이를 보면 10월은 0.2%의 증감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0.3%로 나타나 장기평균(0.2%)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10월은 이사수요 및 국지적인 개발 호재로 인한 가격상승 기대감이 작용하였으나 전년 1.3%에 비해 다소 안정된 수준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상승률이 전월대비 0.2%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이 0.3%, 연립주택이 0.7% 상승하여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0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임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과 동일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6% 상승하고, 강남은 0.2% 상승하여 강북과 강남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전월대비 0.7%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은 0.5%, 아파트는 0.3% 상승을 보여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1.3	0.0	0.1	0.3	0.2	0.3	0.3	7.9	
서울	2.0	0.1	0.3	0.5	0.3	0.4	0.4	12.8	
아파트	2.2	-0.2	0.1	0.3	0.2	0.2	0.3	13.5	
지역별	강북	1.5	0.4	0.5	0.7	0.4	0.6	0.6	15.6
주택매매	강남	2.3	-0.2	0.1	0.4	0.3	0.2	0.2	10.4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노원구, 성북구, 중구, 종랑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10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3%)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4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6%)을 상회함
- 노원구(1.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성북구(0.8%), 중구(0.7%), 종랑구(0.7%), 강북구(0.6%), 은평구(0.6%), 광진구(0.5%), 도봉구(0.5%), 동대문구(0.5%), 용산구(0.4%)의 순임
- 반면 서대문구(0.2%), 성동구(0.2%), 종로구(0.1%)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11개 구 중 4개 구가 강남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2%)을 상회함
- 금천구가 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악구(0.7%), 구로구(0.6%), 영등포구(0.5%)가 그 뒤를 이음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1%p 증가함
- 강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7% 상승한데 반해, 강남은 0.0%로 보합을 나타냄
- 구별로 보면 노원구(1.3%), 금천구(0.9%), 강북구(0.8%), 동대문구(0.7%), 서대문구(0.6%), 종랑구(0.6%), 관악구(0.5%), 도봉구(0.4%), 구로구(0.4%)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3%)을 상회함
- 반면 양천구(-0.3%), 송파구(-0.3%), 강서구(-0.1%), 강동구(-0.1%), 광진구(-0.1%)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고,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1,757만원으로 전월(0.1%)과 상승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498만원), 서초구(2752만원), 송파구(2537만원), 용산구(2427만원), 양천구(2112만원), 강동구(1922만원), 광진구(1844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강북구(973만원), 도봉구(962만원), 종랑구(940만원), 은평구(939만원), 금천구(908만원)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10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0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함
- 전세가격 증감률의 장기추이를 보면 9월은 가을 이사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10월에 들어서면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10월은 22년 장기평균인 0.4%를 하회한 0.2%로 안정세를 보임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10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상승폭이 전월(0.4%)보다 소폭 축소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9월 0.6%에서 10월 0.4% 상승하고, 강남지역은 9월 0.3%에서 10월 0.2%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강북지역에서는 전세물량부족 및 경전철 호재로 광진구와 강북구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지역에서는 뉴타운 및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영등포구와 동작구가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0.5% 상승하고, 연립주택 0.7%, 아파트는 0.1% 상승하여 전국평균에 비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1.0	0.1	0.0	0.1	0.1	0.3	0.2	4.0
서울	1.4	0.1	0.1	0.3	0.2	0.4	0.3	5.8
아파트	1.7	-0.1	0.0	0.1	0.2	0.1	0.1	4.7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6	0.2	0.1	0.4	0.2	0.6	0.4	7.1
강남	1.3	0.0	0.0	0.1	0.2	0.3	0.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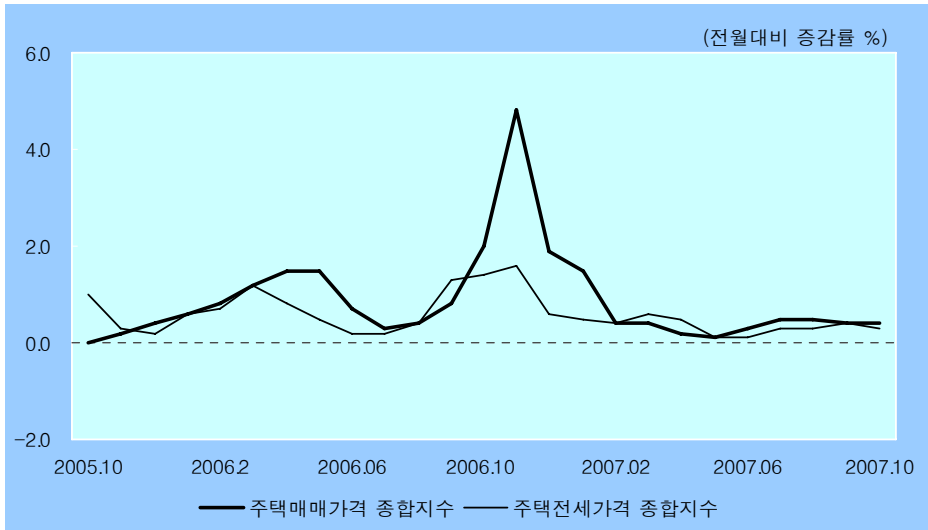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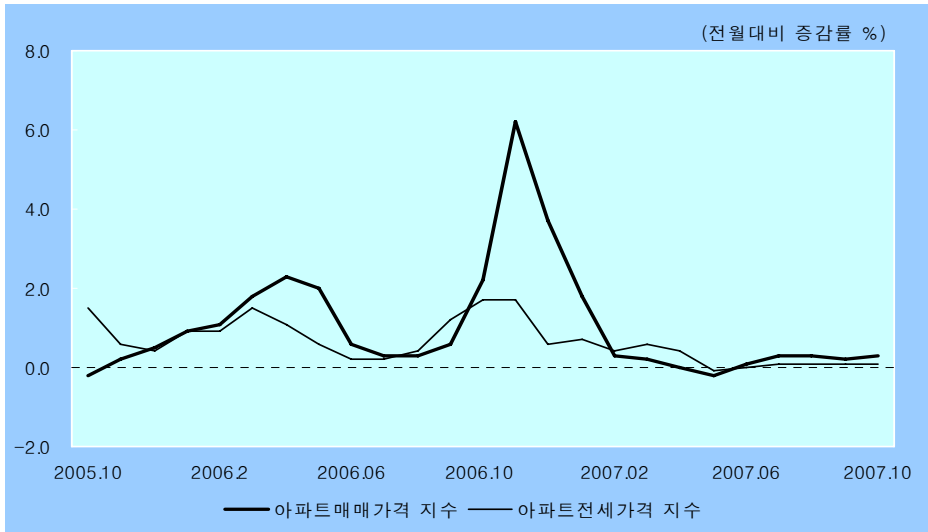
- 주요 상승지역은 광진구, 강북구, 영등포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노원구, 구로구
 - 지역별로 보면 강북구, 광진구, 영등포구에서 1.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성북구(0.9%), 관악구(0.9%), 동작구(0.9%), 노원구(0.5%), 동대문구(0.4%), 종로구(0.4%), 중구(0.4%), 중랑구(0.4%), 구로구(0.4%)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0.3%)을 상회함
 - 송파구(-0.5%), 강남구(-0.3%), 강서구(-0.1%), 용산구(-0.1%)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강동구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전월대비 보합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을 보면 강북은 0.3% 상승하고, 강남은 0.1% 하락함
 - 구별로는 중랑구(0.8%)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영등포구(0.7%), 관악구(0.6%), 서대문구(0.5%), 동대문구(0.4%), 마포구(0.4%), 노원구(0.3%), 동작구(0.3%), 강북구(0.2%), 광진구(0.2%), 성북구(0.2%), 은평구(0.2%), 종로구(0.2%), 구로구(0.2%), 도봉구(0.1%), 서초구(0.1%)에서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성동구, 강동구, 금천구, 양천구에서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반면 송파구(-0.8%), 강남구(-0.4%), 강서구(-0.2%), 용산구(-0.2%), 중구(-0.1%)는 전월대비 전세가격이 하락함
 - 10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624만원으로 강남구(969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강북구(438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하락세 지속
 - 2007년 10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7%로 전월에 비해 미미한(0.1%p) 하락을 보이며, 올해 5월(43.2%)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임
 - 이는 전국 평균 54.2%를 11.0%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1월: 11.4%p, 2월: 11.5%p, 3월: 11.4%, 4월: 11.5%, 5월: 11.4%p, 6월: 11.5%p, 7월: 11.3%p, 8월: 11.4%p, 9월: 11.5%p)는 1월 이후 보합세를 보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8.8%, 강남은 37.5%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되면서,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7년 5월 이후로 미미하지만 꾸준한 하락세를 보임
 - 2006년 11월 처음 30%대를 기록한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37.6%)에 비해 0.1%p 하락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10월중 원/달러 환율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소폭 하락**
 - 10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5.43%로 전월대비 0.03%p 소폭 하락함
 - 이는 미국 금리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신용불안 우려 재부각 등 하락 요인과 국내 경제지표 호조, 주가의 사상최고치 경신 등 상승 요인이 혼재하여 나타난 결과임
- **CD(91일) 유통수익률 보합세 유지**
 - 10월말 CD 유통수익률은 5.35%로 전월과 동일함
 - 10월말 콜금리(1일)는 5.01%로 전월대비 0.03%p 상승함
- **장단기 금리차 좁혀짐**
 - 10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의 소폭 하락으로 전월보다 좁혀진 0.08%p로 나타남
- **KOSPI 지수 상승세**
 - 10월중 KOSPI 지수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 중국 증시 버블 논란 등 대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의 동반 상승 추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냄(10.31일 2,064.9p)
 - 내수경기 회복, 수출 호조세, 3/4분기 기업실적 개선 등이 증시의 상승에 기여함
 - 외국인 매도추세 완화,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 등 증시 수급여건도 개선됨
 - KOSDAQ 지수도 동반 상승하여 15.5p가 상승한 810.1p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 10월중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역외 달러화 매도 영향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900원 수준으로 하락함
 - 월중반까지 910원대 후반에서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월후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결정(10.31일)을 앞두고 금리인하 기대가 고조되면서 전반적인 달러 약세가 지속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금리	국고채(3년)	4.71	5.26	5.22	5.43	5.46	5.43	-0.03
	CD(91일물)	4.58	5.00	5.10	5.29	5.35	5.35	0
	콜금리(1일)	4.48	4.52	4.76	4.98	4.98	5.01	0.03
	장단기 금리차 ¹⁾	0.13	0.26	0.12	0.14	0.11	0.08	-0.03
주 가	KOSPI ²⁾	1,379.2	1,743.6	1,933.3	1,841.7	1,946.5	2,064.9	118.4
	KOSDAQ ²⁾	600.1	778.7	811.5	775.1	794.6	810.1	15.5
환율 (W/US\$) ²⁾	944.2	923.8	919.3	938.3	915.1	900.7	-14.4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크게 확대

- 10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3.9조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다시 확대됨
- 주택담보대출은 가을철 이사 및 결혼 등 계절요인으로 주택거래가 다소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은 추석연휴 카드사용대금의 결제 수요 증가, 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2.8조원 늘어나 전월 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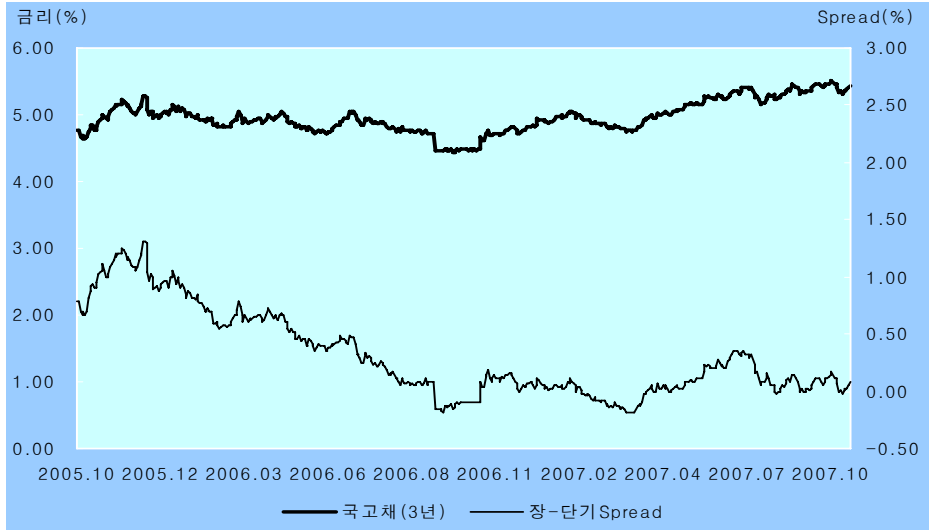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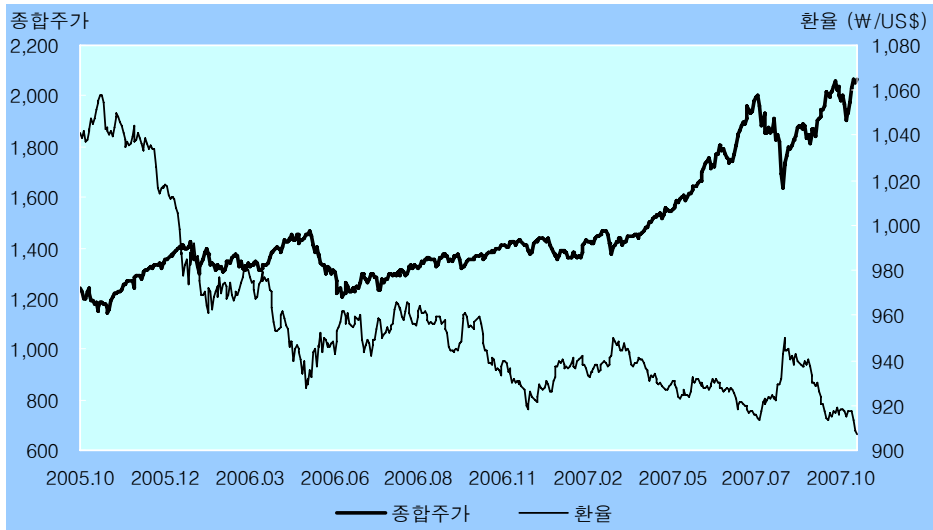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10월	7월	8월	9월	10월	2007년		
							9월	10월	
가계대출 ¹⁾	40.9	4.0	1.8	3.4	0.9	3.9	356.5	360.4	1.1
주택담보대출 ²⁾	26.8	2.8	0.1	0.6	0.3	1.1	218.8	219.9	0.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1.2	1.6	2.8	0.6	2.8	135.9	138.7	2.1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9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확대

- 9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022조 8,921억원으로, 전월대비 15조 2,143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8월 증가액: 12조 8,624억원)이 소폭 축소됨
- 9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04조 3,775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 3,528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5조 6,983억원)보다 크게 확대됨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액
		9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예금은행	672,121.1	747,823.0	755,114.0	764,660.6	777,069.7	12,409.1
	비은행기관	209,419.2	234,851.5	239,701.4	243,017.2	245,822.4	2,805.2
	합계	881,540.3	982,674.5	994,815.4	1,007,677.8	1,022,892.1	15,214.3
서울	예금은행	281,005.4	310,800.2	314,644.3	319,306.4	327,216.4	7,910.0
	비은행기관	57,833.3	71,318.5	74,682.1	75,718.3	77,161.1	1,442.8
	합계	338,838.7	382,118.7	389,326.4	395,024.7	404,377.5	9,352.8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9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

- 9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57.9%로 전월에 비해 0.8%p 상승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83.1	84.6	84.4	85.9	86.4	86.9	0.5
서울	56.3	56.1	56.0	56.6	57.1	57.9	0.8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10월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크게 증가

- 10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595개로 전년동월대비 33.1%(1,144개) 증가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47.5%), 건설 및 설비업(40.6%), 서비스업(28.7%) 등 전업종에서 증가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3.9%, 제조업 21.2%, 건설 및 설비업 14.3%를 차지함

■ 서울 신설법인 수 크게 증가

- 10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24.8%(334개) 증가한 1,680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6.6%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54.4%), 건설 및 설비업(89.8%), 서비스업(16.6%) 등 전업종에서 증가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증가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16.6%(190개) 증가하여 1,333개를 나타냄
- 부문별로 보면 통신업(133.3%)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기타서비스업(-47.1%), 숙박 및 음식점업(-37.5%), 운수업(-31.8%)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가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73.3%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451	4,596	4,298	3,202	4,595	1,144	33.1	1,393	43.5
서울	1,346	1,738	1,654	1,233	1,680	334	24.8	447	36.3
서비스업	1,143	1,408	1,344	911	1,333	190	16.6	422	46.3
제조업	103	166	156	186	159	56	54.4	-27	-14.5
건설 및 설비업	98	161	150	135	186	88	89.8	51	37.8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10월 서울 부도업체수 전월대비 크게 증가

■ 전국 어음부도율 상승

- 10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58개로, 전월(138개) 보다 87.0%(120개) 증가하여 2006년중 평균 211개를 상회함
- 업종별로 제조업(45개)과 건설 및 설비업(59개), 서비스업(106개) 등 전업종이 증가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10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52개) 보다 50.0%(26개) 증가한 78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상회함
- 지역별 부도업체 수는 서울이 26개, 지방은 94개(86개→180개) 각각 증가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27.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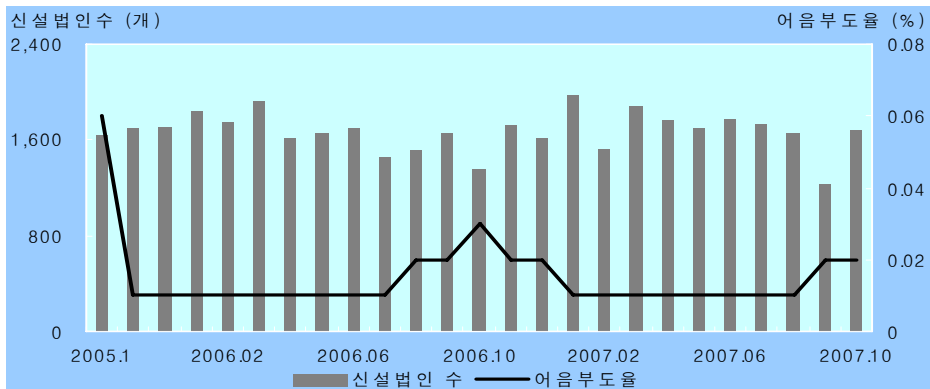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2	0.02	0.03	0.01	50.0	-0.01	-25.0
	부도업체 수	181	214	194	138	258	120	87.0	77	42.5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1	0.01	0.02	0.02	0	0.0	-0.01	-33.3
	부도업체 수	72	61	63	52	78	26	50.0	6	8.3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10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종료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종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0월중 1,447건, 28,455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18.3%, 금액 32.5% 증가함
- 특례보증 종료에 따른 막바지 자금 수요 증가 및 일반보증의 수요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건수 및 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하반기 중 최고의 건당평균금액을 달성함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0월 31일 종료되었으며, 당초 계획 1,000억원 중에 약 998억원 지원되었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875	2,009	2,002	1,852	1,223	1,447	224	18.3	572	65.4
금액	27,577	38,007	36,270	31,927	21,473	28,455	6,982	32.5	878	3.2
건당평균금액	31.5	18.9	18.1	17.2	17.6	19.7	2.1	11.9	-11.8	-37.5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의 비중 증가

- 10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과 비교하여 4.0%p 증가하여 14.7%를 나타냄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39	492	301	307	208	1,447
비율	9.6	34.0	20.8	21.2	14.4	100
금액	4,195	9,744	5,475	5,636	3,405	28,455
비율	14.7	34.3	19.2	19.8	12.0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보증 건당 평균금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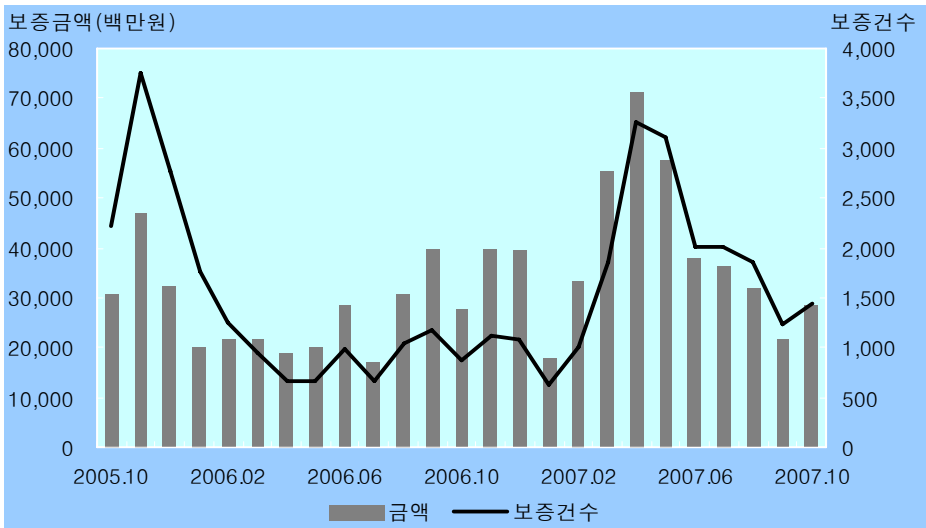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종료로 인하여 증가세를 보이던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감소하여 88.6%를 나타낸 반면 보증 건당 평균금액은 2개월 연속 증가를 보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08	2007.09	2007.10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762	1,176	1,380	204
	비율	95.2	96.2	95.4	-0.8
	금액	27,494	19,748	25,212	5,464
	비율	86.1	92.0	88.6	-3.4
소기업	건수	69	39	44	5.0
	비율	3.7	3.2	3.0	-0.2
	금액	2,993	1,146	2,319	1,173
	비율	9.4	5.3	8.2	2.9
중기업	건수	21	8	23	15.0
	비율	1.1	0.6	1.6	1.0
	금액	1,440	579	924	345
	비율	4.5	2.7	3.2	0.5
합계	건수	1,852	1,223	1,447	224
	비율	100	100	100	0
	금액	31,927	21,473	28,455	6,982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10월 서울 및 수입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전국 수출 월간 최고치

- 10월 전국의 수출은 344억 9,75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23.1% 크게 증가함
- 추석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3.5일) 등으로 인하여 월간 최고치를 기록함
- 품목별로는 일반기계(52.8%), 자동차(32.0%), 무선통신기기(42.7%) 등이 증가한 반면, 철강(-1.5%), 반도체(-3.0%) 등은 감소함

■ 전국 수입 월간 최고치

- 10월 전국의 수입은 326억 74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27.3% 크게 증가함
- 유가상승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자본재·소비재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입 역시 월간 최고치를 기록함
- 용도별로는 소비재(수입비중 11.1%)가 환율하락 및 소비심리 회복 등에 따른 귀금속·보석류(93.0%) 및 승용차(61.7%)의 수입증가에 힘입어 수입품목군 중 가장 높은 39.2%의 증가율을 기록함

■ 서울 수출 크게 증가

- 10월 서울의 수출은 24억 5,40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28.7% 크게 증가함
-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15.3%)를 제외한 컴퓨터(62.9%), 합성수지(27.3%), 반도체(25.6%) 등 대부분이 증가함
- 국가별로는 베트남(110.5%)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국(28.8%), 미국(7.3%), 일본(8.7%) 등 대부분이 증가함

■ 서울 수입 크게 증가

- 10월 서울의 수입은 64억 1,46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28.8% 크게 증가함
- 품목별로는 농약 및 의약품(70.1%)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항공기 및 부품(61.6%), 석유제품(48.7%), 자동차(41.8%) 등 대부분이 증가함
- 국가별로는 싱가포르(65.4)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국(30.0%), 미국(18.4%), 일본(26.3%) 등 대부분이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8,016.0	32,003.9	30,213.5	31,002.8	29,337.1	34,497.5	6,481.5	23.1	5,160.4	17.6
	수입	25,621.8	28,496.0	29,241.0	29,628.7	27,101.1	32,607.4	6,985.6	27.3	5,506.3	20.3
서울	수출	1,906.7	2,364.4	2,278.1	2,331.2	2,109.2	2,454.0	547.3	28.7	344.8	16.3
	수입	4,981.4	5,771.4	5,603.7	5,975.6	5,238.6	6,414.6	1,433.2	28.8	1,176.0	22.4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10월		2006년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454,040	28.7	1,906,720	-3.1
1	반도체	194,487	25.6	154,837	29.2
2	편직물	182,423	25.6	145,198	0.9
3	합성수지	124,559	27.3	97,826	38.4
4	의류	109,322	7.9	101,325	-30.2
5	자동차부품	105,535	54	68,532	23.5
6	고무제품	105,368	25.4	84,036	20.3
7	컴퓨터	92,617	62.9	56,870	-34.3
8	무선통신기기	85,544	-15.3	101,053	13
9	인조장섬유직물	73,622	15	64,011	-7.9
10	플라스틱 제품	59,156	20.6	49,049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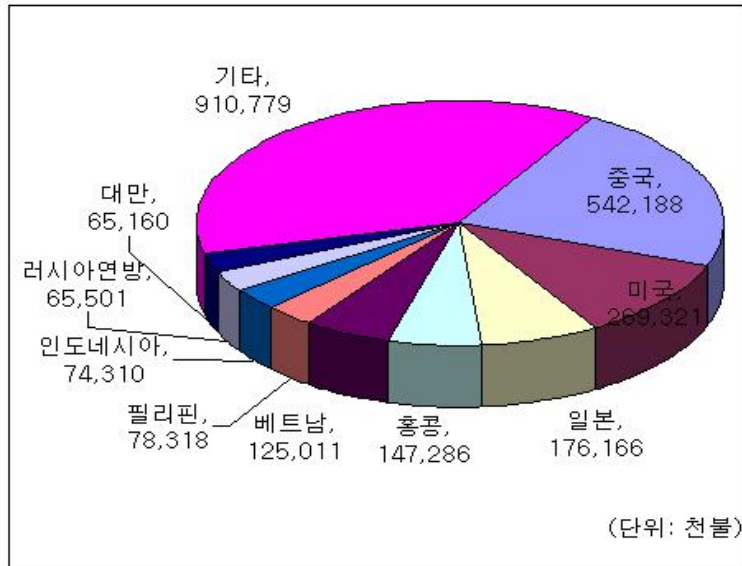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10월		2006년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6,414,637	28.8	4,981,410	18.4
1	반도체	450,774	17.6	383,329	14.9
2	컴퓨터	446,402	10.6	403,783	-7.7
3	의류	440,276	31.1	335,958	96.9
4	항공기및부품	314,546	61.6	194,621	-14.6
5	자동차	231,536	41.8	163,290	-28.1
6	석유제품	146,076	48.7	98,235	-21.4
7	전자응용기기	141,178	38.4	101,989	-21.1
8	육류	131,610	24.5	105,745	18.4
9	농약및의약품	126,102	70.1	74,125	0.7
10	무선통신기기	112,974	12.2	100,715	29.8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